

니콜라 바크리

Nicolas Bacri

음악은 살아 있는 생명체다

관념과 실제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작곡하는 니콜라 바크리와의 인터뷰

니콜라 바크리(1961~)가 1997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의 기도'를 들노라면, 이 곡을 음악사의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눈물 없이 이 작품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작곡가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바크리 역시 선율에 매우 민감하고 뛰어난 음악성을 보인다. 그가 '하나의 기도'에서 그려내는 선율은 달관의 서예가가 자유롭게 화폭을 누비고 있는 형상을 연상케 한다. 그것은 내적 이면서도 역동적이고, 즉흥적이다.

음악과의 첫 번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대중음악을 편곡하고 지휘하는 아버지를 둔 덕에 집안에는 늘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대중음악은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해 항상 어떤 결핍을 느끼게 했다. 학창 시절,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음악교사가 있었다. 그 덕분에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불과 일곱 살의 나이에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일 년에 두 번 우리 반 학생들을 오페라 극장에 데리고 갔다. 그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종종 들려주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러시아 음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은 정말로 훌륭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러시아 음악에는 어딘가 어린이 같은 면모가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5인조와 차이콥스키의 음악에는 이러한 유아기적 면모가 다분하다.

물론, 스트라빈스키부터는 다른 시대로 접어든다. 아버지는 클래식 음악 음반을 몇 장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한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도 있었다. 아홉 살 때로 기억하는데, 나는 이 음반을 여러 번 반복해 들었다.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말이다. 어렸을 적에는 어떤 이야기나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장시간 연주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봄의 제전'을 나중에 다시 들었을 때는 당시 만들어냈던 이야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음악을 듣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아닌, 지적인 방식으로 듣게 된 것이다.

여덟 살에서 열두 살 무렵까지 스트라빈스키 외에 라벨·프로코피예프 등 수많은 작곡가의 작품을 접했다. 아홉 살 때, 나는 오래 기억에 남는 음악적 행운을 얻었다. 당시 아버지가 클래식 음악 연주회에 가는 일은 연중행사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회에 나를 데리고 간 것이다. 전반부의 프로그램은 기억나지 않지만, 후반부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정 교향곡'이 연주됐다. '가정 교향곡'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나는 연주회 다음 날 음반을 구입해 끊임없이 반복해 들었다. 당시 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가정 교향곡'은 매우 뛰어난 작품이지만, 작곡에 얽힌 사연과 제목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하르트 슈트라



...s. Bracri

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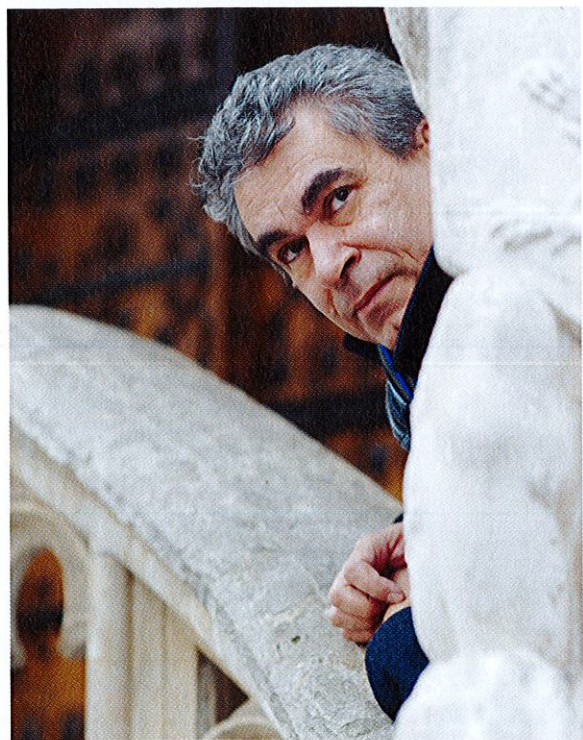
...Nicolau Bruni

우스는 역사적인 소재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도 흥미롭고 영웅적인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가정 교향곡'이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영웅적 서사와 비교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완전히 옳았지만 '가정 교향곡' 자체는 정말로 뛰어나다. 작곡가의 의도든, 아니면 악보 편집자의 의도든 표제 덕을 본 작품이 제법 있지만 '가정 교향곡'은 작곡가의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과 표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힌 작품이 되어버렸다. 지금도 이 작품이 걸작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다. 표제를 읽고 작품을 순수하게 음악적으로만 듣는다면 걸작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어릴 적에는 작곡에 대해 매우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작곡가들은 음악이라는 영감을 받고, 그것을 악보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다. 물론 나중에 작곡을 하게 되면서 작곡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동화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작곡을 시작하고, 작곡가로서의 삶을 결심한 때는 언제인가?
하루는 집에서 아버지가 클래식 음악 음반을 틀어놓고 "나는 결코 이런 음악을 작곡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

바크리가 '하나의 기도'에서 그려내는 선율은 달관의 서예가가 자유롭게 화폭을 누비고 있는 형상을 연상케 한다. 그것은 내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즉흥적이다



니콜라 바크리 ©Luc Viauour

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버지의 그 말은 내게 작곡가가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주었다. 아버지 역시 작곡과 편곡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일을 했지만,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 사이에는 분명 다른 수준과 경계가 존재한다.

나는 피아노를 배우기 전 네 살 무렵부터 피아노에서 즉흥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피아노에서 연주했던 것을 녹음해놓았다. 그리고 14살 무렵부터 그동안 녹음했던 즉흥연주들을 악보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몇몇 작품은 나의 피아노 모음곡 '예술의 유년기'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나의 작곡의 시작은 피아노 즉흥연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릴 적에는 음악가가 되리라고는, 특히 작곡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솔페주 등의 수업을 받았지만 나는 정말 게으른 학생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방식이 너무나 엄격하고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새로운 피아노곡을 배우기 시작하면 2주 이상 열의를 느끼지 못했다. 비록 피아노 교사가 원했던 만큼 잘 연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곡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는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곡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 중인 곡을 잘 연주해야 했는데,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작곡에 전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음악가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종종 내가 원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좋다고 말했는데, 물론 그건 아버지의 진심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영화 연출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곤 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나의 발언은 음악가인 아버지와는 경쟁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나는 영화광이었고, 매우 많은 영화를 보았다. 8살 무렵, TV에서는 매일 오후 8시 반에 영화 한 편을 내보냈는데, 덕분에 나는 매일 영화를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영화 한 편을 보는 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일요일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아마 당시 한 해에 300여 편의 영화를 보았을 것이다.

스무 살까지 영화에 대한 나의 열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13-15살 무렵에는 음악을 미친 듯이 공부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15살 때 일종의 운명이 찾아왔다. 1977년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방송을 위해 사용할 음악을 작곡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대중음악이 아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곡 중인 세르주 닷. 바크리는 그의 문하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니라 클래식 음악에 가까운 소위 '진지한 음악'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러한 음악을 단 한 번도 작곡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음악원에서 화성학과 작곡을 공부하고 있었다. 작곡은 이전에 로마 대상을 받았던 크리스티앙 말랭과 공부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 샤를 페클랭의 관현악법 책을 소실처럼 밤새워 읽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요청받은 음악의 일부를 작곡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이해할 만한 음악적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쓴 곡들을 가지고 크리스티앙 말랭에게 직접 찾아갔다. 말랭은 내가 쓴 곡을 검토한 뒤 계속 곡을 써도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당시 아버지는 내가 작곡한 곡을 오케스트라에 나누어 주기 위해 일일이 사보를 했는데, 모두 마칠 즈음에는 곡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당시 나는 여덟 곡을 썼는데, 단 한 곡만 아버지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했을 뿐, 나머지 일곱 곡은 내가 직접 했다. 들여다보면 내 삶에서 가장 흥분되는 시기였다. 프라하에서 일주일 동안 녹음을 했는데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다. 나는 영화 관련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접고 작곡가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파리 음악원의 작곡과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먼저 마리우스 콩스탕을 만나서, 그에게 내가 작곡한 곡들을 보여주었다. 당시 파리 음악원에는 몇 명의 교수가 작곡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세르주 닷에게 배울 것을 추천했다. 일 년 동안 세르주 닷의 작곡 수업을 들었고, 이듬해 그의 클래스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공부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로마 대상을 수상했다. 당시 나의 삶은 오로지 음악뿐이었다.

무조로 작곡하다가 조성음악으로 돌아왔다. 어떠한 계기로 돌아왔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 파리 음악원의 작곡과에 재학 중일 때 나는 가장 나이가 어렸고, 21살에 로마 대상을 받고 메디치에서 작곡가로 머무를 때도 그랬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현대음악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무조음악을 일컫는다. 이는 음악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훨씬 더 강하다(그는 무조음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클래식 음악계를 강타한 정치적 배경을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지만, 여기에 다 옮길 수는 없다). 나도 다름슈타트에 머물렀고, 성실함과 열의를 다해 무조음악을 작곡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무조음악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무조음악을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무조음악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작곡을 하는가?

우선 곡을 쓰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한다. 머릿속으로 선율을 듣고, 구조를 만들고, 악기를 설정한다. 물론 이렇게 사전에 생각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책상에 앉아 곡을 쓰기 시작하면, 애초 생각과는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소리와 음악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을 쓴다는 것은 생각과 실제 사이의 끊임없는 물음과 대화에서 탄생하며, 또한 자신의 투쟁이기도 하다.

글 김동준(재불음악평론가)

김동준은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음악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수년간 음악평론가로 활동 후, 2002년부터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파리 제4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를 취득했고 에콜 노르말을 비롯한 음악원에서 수학 후 2008년부터 프랑스 르세네 음악원의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파리국제음악프레스협회와 아카데미 뒤 디스크 리리크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음악 월간지 '음악가의 편지(La Lettre du Musicien)'에 기고하고 있다.